

## ■ 2017년도[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서울로7017을 활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자 공모] 지원심의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서울로7017을 활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자 공모
- 회의일시 : 2017. 7. 28. (금) 14:00~16: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3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기해, '서울로 7017'을 활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자 공모에서 참신한 계획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서울로 7017'이 갖고 있는 장소적 특성을 재료로 삼아 시민들에게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좋은 계획안이 적지 않았다.

총 15개팀(기획자)이 지원신청을 했는데, 대상자 선발은 1차 서면심의(재택심의)와 2차 현장 인터뷰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1차 서면심의를 심의위원별 상위 5개 팀을 추천하여, 전체 심의위원 추천 누적 점수로 상위 4위에 해당하는 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차 심의는 1심을 통과한 4개 팀을 (기획자, 미술작가, 건축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심의로 진행하였다. 2차 심의에서는 공모 지원자와 심사위원 간의 심도 있는 대화로, 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콘셉트와 작업 구현 방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들의 계획안과 인터뷰 내용에 대해 예술적 수월성을 기본으로 하고, 평창 문화올림픽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 올림픽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작품, 미래 세대에게 꿈과 가능성을 심어 줄 수 있는 작품, 서울로 7017의 장소 특성을 잘 활용한 작품 등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또한 서울로 7017이 시민들의 통행로이기도 한 점을 고려해 통행권과 안전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다.

2심 토론 과정에서, A팀의 <북두칠성 정원 프로젝트>와 B팀의 <너에게 가는 길>, C팀의 <평화의 노래>도 함께 경합을 이루었으나, 최종적으로 FACTORY(대표 홍보라)의 <SIGNAL LIGHTS, CONNECTED>를 지원대상(우선협상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이 작품은 빛과 소리를 주된 매체로 삼아, 평창의 바람과 기온 등의 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특정 신호로 변환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공공미술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서울로 7017'이 기본적으로 '길'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울과 평창, 나아가 세계로 이어지는 무한한 확장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장치나 구조물을 덧대는 것이 아닌, 빛과 소리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질 이번 작품이 일반 관객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질 빛과 소리에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어준다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공공미술로, 서울로7017에서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평창의 빛과 소리가 서울로7017과 잘 어울려 멋진 공공미술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